

## 창업학의 정의와 연구과제에 대한 탐색적 연구

정헌배 (중앙대학교 경영경제대학 경영학부 교수)\*

### 국 문 요 약

창업학은 다양한 학문의 종합적 결정체이자 학제적(學際的; Interdisciplinary) 연구영역을 갖는다. 경영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학, 경제학, 공학 등의 이질적 학문으로부터 이론적 체계나 실천적인 방법론 등을 흡수하면서도 전혀 새로운 학문생태계를 형성해오고 있다. 그리고 창업에 대한 사회적 중요성과 활용규모에 비해 이를 논리적으로 뒷받침해야할 창업학의 현실은 너무도 척박하다. 아직도 창업학의 정의가 공론화되어있지 못하고 있으며 창업학의 정체성에 대한 학문적 합의 역시 요원한 현실이다. 본 논문에서는 창업학의 발전을 위한 논리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창업(創業)은 개인적 인생을 통해 선택하게 되는 다양한 업(業)중의 하나이며 사회 및 경제활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활동”으로 그리고 창업학을 창업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學問)으로 새롭게 정의하면서 창업학의 정체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연구 및 교육분야를 제시하였다.

핵심어 : 창업, 창업학, 창업가정신, 창업학의 정체성, 학제적 연구

### I. 서론

오늘날 ‘창업(創業; Startup)’은 지속가능한 사회와 국가를 만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동력의 하나로 인정받고 있으며 시대적인 화두가 되고 있다.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의 정부가 경제 및 사회정책에서 청년창업가육성 등 다양한 창업활성화 제도마련을 최우선 과제로 고민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정치 및 행정활동분야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60년대 제3공화국시대부터 구현해온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이 성공함으로 산업화의 기반을 마련하였고 이를 통하여 끊임없는 고용 창출을 유발해왔다. 그러나 1998년 IMF사태 이후 급격한 경제구조의 변화로 우리나라에서도 ‘고용 없는 성장의 시대’가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이때부터 우리 정부는 청년과 퇴직자 일자리창출이라는 문제 해결에 부심하고 있으며 박근혜정부도 이를 ‘창조경제’라는 큰 틀(프레임)속에서 해결하고자 각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실정이다.

창업에 대한 관심과 창업성공에 대한 열망이 사회적으로 팽배하는데 비례해서 창업교육과 창업정책 역시 과거에 비해 현저하게 다양한 형태로 개발, 실천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창업(創業)을 체계적이고도 설명하고 논리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창업학(創業學)”에 대한 논의는 아직도 본격화 되지 못하고 있으며 거의 불모지에 가까운 현실이 지속되고 있다. 수 년전부터 Park & Park(2011) 등을 필두로 창업학의 정체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점은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다.

창업학은 태생적으로 학제적(學際的; Interdisciplinary) 연구영

역이다. 경영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학, 공학 등의 다양한 학문으로부터 이론적 체계나 실천적인 방법론 등을 흡수하면서도 이들과 차별화되는 새로운 학문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

창업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적 생태계를 성공적으로 조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를 논리적으로 뒷받침하고 발전시켜 나가야할 학문으로서의 토양을 비옥하게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창업학을 공론화 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정의를 제대로 마련하고 창업학의 정체성에 대한 논의와 학문적 근간과 적용범주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창업학의 발전을 위한 논리적 초석을 마련하기 위하여 창업학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을 정의하는데 있었다. 그리고 우리나라 창업학의 현주소와 정체성 고찰을 통하여 이를 바람직하게 발전시켜나갈 핵심적 연구 분야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 II. 창업학의 정의와 정체성

#### 2.1 창업과 창업학의 개념적 정의

창업(創業)의 의미를 한자(漢字) 표기글 의미 그대로 보면 업(業)을 새롭게 만들어 내는 과정(비롯할, 시작할 創)이며 사전적으로는 대부분 나라를 처음으로 세우거나 사업을 처음으로 이루어 시작하는 것 등의 활동으로 정의 된다. 결국 나라를 세우는 일을 여기서 논외로 하면 창업이란 “사업을 처음으로 이루어 시작하는 과정”으로 정의 할 수 있을 것이다.

\* 제1저자, 중앙대학교 경영경제대학 경영학부 교수, hbjeong@cau.ac.kr

· 투고일: 2016-05-14 · 수정일: 2016-06-21 · 게재확정일: 2016-06-26

창업을 보다 명확하게 정의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처음으로 이루어 시작하는 과정”이라는 문장을 구성하는 각 단어의 개별적 의미를 보다 자세히 새겨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사업”의 성격과 “처음으로 이루어 시작하는 과정”의 주제, 내용과 시한을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따라 그 적용영역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창업이 규정하는 “사업”이 대상으로 하는 제품과 시장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 먼저 사업의 대상으로 창업아이템인 제품이 해당 시장에 처음으로 도입 되는 신제품 시장에 국한할 것 인지 아니면 기존 또는 대체 제품시장까지를 포함할 것 인가에 따라 사업의 규모와 적용영역이 크게 달라진다.

그리고 창업의 정의가 규정하는 “처음으로 이루어 시작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주체가 누구인가, 사업의 범주와 내용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 그리고 언제까지를 창업과정 활동으로 볼 것인가 등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 창업자에게는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일지라도 이미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른 경쟁자에게는 기존 사업일수가 있고 창업이라는 과정의 적용시한을 어떻게 정하는가에 따라 창업과정으로 인정하는 기간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창업의 정의는 창업의 과정을 개인적인 인생전략의 하나로 보는가 아니면 국가 사회적 활동유형의 하나로 보는가에 따라 그 내용이 크게 달라질 것이다.

먼저 창업을 개인적 관점에서 보면 인생을 통해 선택하게 되는 다양한 업(業)중의 하나이다. 사람은 인생을 통하여 출생으로 부모를 만나고, 사회 속에서 친구를 만나고, 사랑을 만나고, 평생을 일구어갈 업(業)을 만난다.

우리는 바람직한 업을 갖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을 학업(學業)이라하며 살아가는 과정에 필요한 모든 욕구를 충족시키는 원천을 직업(職業)을 통해 마련한다. 그리고 학업과 직업이 모여 한사람의 삶을 아우르는 하늘이 내린 천직(天職)이 마련된다. 천직이란 평생을 살아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경제활동의 원천이며 사회, 자연 그리고 스스로를 생각하고 만나게 해주는 인간성숙의 원천이 된다. 이러한 개인적 업의 선택 대상, 특히 직업적 관점의 대상 중의 하나가 창업이다. 이를 직업과 창업을 선택적 관점에서 구분하여 이를 창업(創業)과 창작(創職)으로 나누어 설명하기도 한다(Kim & Lee, 2014).

창업을 국가 사회적 관점에서 보면 “사회 및 경제활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새로운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활동”이다.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발전을 위한 목적이던 경제발전이나 이윤창출을 위한 목적이던 필연적으로 조직을 구성하게 된다.

물론 1인 창업이라는 용어도 상용화 되고 있지만 이는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의 수가 한사람이었다는 의미 이상의 뜻은

없다, 결국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던 궁극적으로 혼자 힘으로 모두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없으므로 공동창업자나, 직원이 참여하는 조직을 만들어 갈수 밖에 없다, 그래서 창업은 자연스럽게 조직을 통하여 고용창출과 경제활성화의 기반을 만들어 가게 되는 것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조직의 목적은 영리기업 조직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비영리단체, 대학, 공공기관 등 모든 형태의 조직을 포괄적으로 의미한다.

창업은 조직발전단계 차원에서도 구분설명 될 수 있다. 율곡 이이(李珣)는 그의 저서 성학집요에서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창업(創業)·수성(守城)·경장(更張)의 도(道)를 밝히고 있다. 기업의 발전 단계도 이와 유사하다. 예를 들어 창업자의 2세는 수성에 전념하고 3세에 들어서서는 경장 즉 혁신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 필요한 것이 인사혁신과 제도개혁이라 주장하였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인사혁신과 제도개혁의 주안점은 사람과 조직의 개편에 있다.

한편 창업 후 언제까지를 창업과정 활동기간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정부의 창업지원대상을 선정하는 등 정책/제도적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 왜냐하면 창업이라는 과정을 단순한 기간개념으로 설정하면 행정관리적 측면에서는 명료한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개별 창업활동의 조직적 특성과 성장수준을 무시한다는 측면에서는 학문적으로 일반화하는 창업의 정의에 기간적 개념을 포함시키기에는 논리적 모순점이 많아진다.

결국 이러한 모든 점들을 감안할때 창업(創業)은 개인적 인생을 통해 선택하게 되는 다양한 업(業)중의 하나이며 사회 및 경제활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활동”으로 정의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창업학이란 무엇인가? 창업학이란 쉽게 얘기해서 창업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學問; Disciplines)이다. 일반적으로 학문이란 학자들이 연구 활동을 한 결과를 축적해 놓은 지식체계와 이를 학습하고, 발전시키는 교육체계 두 가지 활동을 동시에 의미한다. 실제로 학문은 과거 그 분야의 학자들이 발견, 축적해 놓은 개념과 탐구방법을 통하여 현재 학문을 하는 사람들이 그 개념과 탐구방법을 써서 각각 관련된 현상을 이해하는 활동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Education Research Institute Seoul National University, 1995).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창업학<sup>2)</sup>은 “창업에 관련된 제반 선행연구 결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집대성하여(지식/정보체계) 이를 통하여 창업을 학습, 교육하고 연구하여 학문적으로 더 발전시키는 활동(교육/연구체계)”이 된다.

문제는 창업학의 지식체계 범주와 교육연구체계범주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따라 창업학의 학문적 성격 규정에 딜레마를 형성하게 된다는 점이다. 창업학을 기업이나 경제활동

1) 창업, 수성, 경장의 도는 일찍이 중국 역사상 최고의 성군으로 일컬어지는 당태종(唐太宗)의 언행을 기록한 “정관정요” 에도 기록이 있다. 당태종 이세민은 신하들에게 한 나라를 창업하는 것이 더 어려운가 아니면 수성이 더 어려운가를 질문한다. 이 질문에 천하를 평정하기까지 황제와 함께 온갖 고초를 겪은 방현령은 창업이 더 어렵다고 했고, 개국 후 나라의 안정을 도모하며 국가의 위기를 염려해온 위징은 수성이 더 어렵다고 했다. 당태종은 두 사람의 주장이 다 이해되고 일리가 있다며, 현재 창업의 어려움은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일이 되었지만 수성의 어려움은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 신하들과 함께 신중하게 처리해야 할 일이라고 답했다.

2) 창업학의 영문표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견이 있고 실제로 보다 체계적인 고찰이 필요하므로 본 논문에서는 잠정적으로 창업(創業) 원문의 뜻을 그대로 살려 ‘Start-up studies’ 로 표기한다.

중심으로 본다면 굳이 경영학과 다른 학문으로 정의하기 어려울 것이며 창업자의 행동을 기존의 개인적 심리현상이나 사회적 행동 중심으로 본다면 심리학이나 사회학의 범주를 벗어나기 어렵다.

결국 아직은 신생 학문으로 밖에 볼 수 없는 창업학의 지식 체계 범주는 창업학의 정체성 규명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정의해 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 2.2 창업학 정체성

창업학의 정체(正體, Identity)는 과연 무엇인가?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다른 나라에서도 창업학을 창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이란 용어의 동의어로 치부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창업학이라는 새로운 학문분야의 본질을 호도할 수가 있다는 점이다. 기업가정신이나 사업가정신으로 경영학 전체를 설명할 수 없듯이 창업가정신을 창업학의 동의어로 사용하는 순간 학문의 영역규정이나 정체성 확보에 엄청난 혼란을 겪게 된다.

인간이 건강한 육체(물리적 기반)와 건강한 정신(영혼적 기반)으로 생명체가 완성되듯이 창업학 역시 창업가정신이라는 영혼적 기반과 창업시스템이라는 물리적 기반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학문이 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창업학의 연구분야와 적용 영역은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과거와 현재의 창업관련 이슈들의 중요성이 변화해 왔듯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래의 새로운 이슈가 성립되고 이를 중심으로 창업학을 논하게 될 것이다.

창업학은 태생적으로 학제적(學際的, Interdisciplinary) 연구영역이다. 경영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학, 경제학, 공학 등의 다양한 학문으로부터 이론적 체계나 실천적인 방법론 등을 흡수하면서도 전혀 새로운 학문생태계를 형성해오고 있다. 그리고 창업에 대한 사회적 중요성과 활용규모에 비해 이를 논리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창업학을 공문화 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정의가 마련되어야 하고 창업학의 정체성에 대한 학문적 합의 역시 필요하다.

창업학 발전을 위한 선행조건은 창업학 개념적 정의에 대한 학문적 합의이다. 그리고 창업학은 창업에 관련된 진리를 탐구하는 행위를 통하여 논리적이고도 실천가능한 이론의 도출을 도모하고 시대적 현실을 반영하면서 지속적으로 연구의 폭과 깊이를 넓혀 가야할 필요가 있다.

현재 창업학의 학문적 정체성 규정에 딜레마를 형성하는 가장 인접한 학문은 경영학이다. 물론 이는 모든 학문이 발전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세분화되는 것이 당연하고 분화 발전하는 창업학의 정체성이 기존 경영학과 구별되는 독특한 성질이 있으면 비록 동일한 기업이 진리탐구 대상이라도 선택한 인식

대상에 대한 관점에 따라 학문의 정체성이 달라진다(Park, 2002).

두 개 이상의 학문들이 진리 탐구의 대상으로 동일한 것을 선택하더라도 한 학문은 인식 대상에 대한 관점에 따라 다른 학문들과 구별될 수 있다.<sup>3)</sup> 창업학의 개념적 정의를 경영학과 차별화해서 재정립한다고 해도 창업학의 학문적 포괄성을 고려할 때 경영학은 물론이고 심리, 사회학 그리고 여타 학문과의 상호작용은 중요하다. 그래서 창업학의 정체성은 본질적으로 학제적(學際的, Interdisciplinary)으로 규정될 수밖에 없다.

## III. 창업학의 연구현황

대부분의 학자들은 창업학을 1970년대 후반부터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 연구자들이 본격적으로 시작한 창업가정신(Entrepreneurship)<sup>4)</sup> 연구에서 그 근원을 찾고 있다. 그리고 창업학은 경영학의 하부 학문의 하나로 발전해 오기보다 창업의 사회적 필요성과 창업교육에 대한 수요에 부응하는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발전해온 실천 학문분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창업학은 1990년대 후반 벤처창업 붐과 노동 및 복지정책의 일종으로 창업 수요에 따라 창업교육과 창업기법 강좌 중심으로 논의되어왔다. 이러한 이유로 창업학의 독자적인 학문체계나 연구영역 등에 대한 체계적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 장에서는 창업학을 앞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창업가정신을 학문영역의 일부로 포함하는 창업에 관련된 제반 영역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정의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창업학의 연구현황을 정리해 보았다.

### 3.1 창업학의 출범 배경

우리나라 문헌 중 창업학이라는 용어가 최초로 등장한 경우는 Park(1986)의 저서 ‘창업학’이다.<sup>5)</sup> Park(1986)은 그의 저서 “창업학”에서 창업학을 Entrepreneurship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규정하고 창업과 창업학에 대한 나름대로의 정의를 제시함으로써 창업을 하나의 독립적 학문분야로 생각하게 하는 단초를 제공하였다. 이후 1998년에 이르러서야 한국창업정보학회가 설립되고 2003년 한국창업학회와 2006년 한국벤처창업학회가 설립되면서 학회차원의 논의가 시작되었으나 아직도 창업학 논의에 필요한 기초용어 조차 제대로 정의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는 창업에 대한 논의가 관련학자나 학회중심으로 되기보다 정부의 정책적 필요성 차원에서 준비되고 집행되어왔기 때문으로 보인다(Hahn & Ko, 2007). 결국 이는 창업학 역시 학계 내부에서 자생적으로 발전했다기보다는 정부정책의 시행과 제도마련차원에서 정책 연구가 주축이 되어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3) 그는 동일한 인간을 진리 탐구 대상으로 하지만 윤리학은 인간성을, 인체생물학은 생물학적 구조를, 인간 심리학은 심리적 변화를, 인간신체미학은 미학적 가치를 각기 다른 관점으로 연구하고 있음을 예로 들었다.

4) Entrepreneurship이라는 용어를 기업가정신으로 해석, 활용하는 경우가 더 빈번한 것이 현실이나 본고에서는 창업가정신으로 정의한다.

5) “창업학(이론/방법/사례)”라는 제목과 영문 Entrepreneurship (Theory/ Method/ Cases)라는 부제로 표지를 구성하였다.

창업학에 대한 본격적 논의가 현실적으로 가능했던 시점은 2004년 우리나라 최초로 창업대학원을 설립한 중앙대학교를 필두로 창업학석사가 배출되기 시작한 때부터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 이전에는 창업학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없었고 창업 전문인력을 배출하는 교육 기관도 없었기 때문이다. 중앙대학교는 2007년 창업학 박사과정을 개설함으로써 창업학을 체계적으로 학습한 고급 연구인력을 우리 창업 생태계에 본격적으로 공급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우리 사회에 배출된 창업전문 인력을 중심으로 창업학 연구 및 교육기반구축의 원동력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고급 연구인력을 체계적으로 활용하고 연구역량을 결집시키는 구심체가 활성화되지 못하여 아직까지는 큰 성과를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3.2 창업학 국내 연구

창업에 국내 문헌이나 연구자료는 비교적 다양한 형태로 많이 존재하나 창업학을 거론하고 구체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자료는 극히 희소하다.

국내 창업학 연구의 시발점은 Park(1986)의 저서 창업학에서 찾을 수 있다. Park(1986)은 이 책에서 창업학을 Entrepreneurship을 연구하는 학문 또는 학문영역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는 Entrepreneurship을 좁은 의미로 해석할 경우에 창업학으로 표기하여야 하며, 넓은 의미의 Entrepreneurship은 혁신적 기업가 활동으로 해석하면서 용어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넓은 의미의 Entrepreneurship은 앙트르프러너십이라는 원음 그대로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Cha(2007)은 창업학을 ‘Entrepreneurship Interdiscipline (The small Business Creation Science)’으로 칭하며 창업현상 또는 부 창출현상의 실체를 규명하는 학문, 또는 실체를 연구하는 기초과학의 간 학문적 인식 체계 및 실천체계의 학문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리고 창업학의 정체성 정립을 위해서는 창업가가 새로운 사업 창출을 위한 기회의 발견에서부터 창업의지의 작용, 자원투입, 성장, 지속가능한 안정된 기업으로 정착하는 단계에 이르기까지의 제반 과정(Process)에 대한 이론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Kang(2012)은 창업학원론을 통하여 창업(創業:Start-up)을 개인이나 회사가 수익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그리고 영문표기로는 기업의 출범(Inauguration of an Enterprise)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창업학을 별도로 정의하지는 않았다.

Kim(2012)은 창업은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고, 포착하며, 이용하는 것이며 그래서 창업을 ‘Foundation’이란 말 그대로 사업의 기초를 세우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Kim & Lee(2014)는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이라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2조를 그대로 정의로 인용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승계하지 않은 그리고 사업을 개시한지 7년이 지나지 않은 새로운 사업은 모

두 창업으로 간주된다.

국내 문헌이나 연구를 종합해보면 실무적 차원에서의 창업 지침서 성격의 자료는 넘쳐나고 있으나 정작 창업과 창업학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논의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특히 창업학에 대한 논의는 거의 전무했다는 사실은 보편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학문적 정의가 아직까지는 마련되지 못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창업과 창업학에 대한 연구방향과 교육내용 설정에도 많은 혼선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보여 진다.

## IV. 창업학의 연구과제

본 장에서는 창업학의 연구과제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도출하기 위하여 먼저 창업학의 기본 활동무대를 형성하고 있는 우리나라 창업생태계의 현실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창업학에 대한 선행연구 현황과 교육실태 분석을 통하여 창업학이 독자적으로 자리 매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해 보았다.

### 4.1. 우리나라의 시대별 창업 추세변화

창업이란 개인이나 기존 기업조직이 모두 가능한 행위이기 는 하나 대부분 개인 창업자가 제한된 자원으로 새롭게 사업을 개시하는 것이 일반적 상황이다.

우리나라 역시 소상공인 창업을 중심으로 창업정책과 제도가 강구되어왔으며 그 결과 학문적 관심보다 사회정책적 관심사 위주로 연구와 교육이 진행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창업이란 용어의 사용이 활발해지고 이에 관련된 다양한 정책과 교육이 마련되기 시작한 소상공인 창업부문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시장추세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창업자들은 창업의 출발점인 창업아이템을 선택할 때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따라서 창업자들은 창업시장의 흐름을 잘 파악할 필요가 있다. 창업시장의 트렌드를 잘 읽어야 유망업종이 보이고, 유망업종을 잘 선택해야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창업시장은 국내 경기 상황과 사회 환경 변화에 따라 인기창업 아이템이 크게 달라져왔다. 창업에 대한 관심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1980년대 말부터 우리나라 창업생태계의 추세를 시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특징이 발견된다(Small Enterprise Development Agency, 2009).

#### 4.1.1 창업 태동기(1988서울올림픽)

1988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마련된 창업시장 관심증가기이다. 이때 웬디스, 하디스, 맥도날드, KFC, 파파이스 등 외국계 외식업 브랜드가 잇달아 우리나라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했다. 이 시기에 패스트푸드점, 원두커피 전문점, 호프집, 중저가 캐주얼 의류점들이호황을 누렸으며 패션-잡화업종도 덩달아 인기를 끌었다.

#### 4.1.2 창업시장‘거품’시대(1990~1997년)

1990년대 들어서면서 창업시장에 명퇴직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른바 ‘명퇴형 창업 아이템’이란 용어도 등장했다. 대표적인 ‘명퇴형 창업 아이템’은 편의점(CVS), 제과점, 아이스크림점, 놀부 등 프랜차이즈들과 한식당, 중저가 캐주얼 의류점들이었다. 이 시기에 빼놓을 수 없는 창업 트렌드는 수도권 5대 신도시가 생겨나면서 전국 단위의 택지개발지구 상권이 본격적으로 출현했다는 점이다. 도심 외곽의 이른바 ‘아파트 상권’이란 용어가 등장했다. 창업자들은 이때부터 아파트 단지 상권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이 시기의 창업시장은 겉으로 활력을 찾는 것 같이 보였지만 실제로는 거품시대였다. 서울 강남의 오피스 상권의 활황과 상가분양 가격, 점포 임대료, 권리금도 상당한 거품을 안고 있던 시대로 평가된다.

#### 4.1.3 IMF형 소자본 창업 시대(1997년 말~1999년)

1997년 말 대한민국을 강타한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는 창업시장에도 큰 변화의 바람을 몰고 왔다. 1990년대 중반의 창업시장 거품도 빠지기 시작했다. 외환위기 직전에 유행했던 고급 커피점이 시장에서 사라지고 맥주보다는 소주가 더 인기를 끌었다. 화려한 것보다는 소박한 것, 호화스러운 것보다는 서민적인 스타일이 창업 아이템의 주류를 이루었다. 경기불황이라는 트렌드에 맞춘 ‘IMF형 창업 아이템’들이 시장에 쏟아지기 시작했다. 많은 사람들이 투자비용이 적은 소자본 창업아이템을 선호했기 때문이다. 특히 5000만원 내외의 자금으로 창업할 수 있는 소갈비살 전문점이 인기를 끌었다. 선술집 형태의 드럼통 숯불구이로 유명했던 소갈비살 전문점은 소비자들이 소주를 마시며 대화하는 공간을 제공했다. 기존의 온돌형 삼겹살집보다는 ‘선술집형 돼지구이집’도 인기를 누렸다. ‘황가네 호떡’과 차량형 창업 아이템 등과 같이 전국적으로 노점 열풍도 불었다.

#### 4.1.4 창업시장 지각변동의 시기(2000~2006년)

2000년대 접어들면서 창업시장에 일대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먼저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움을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창업시장도 점차 회복 국면에 진입하기 시작했다. IMF형 창업 아이템들이 주춤하자 화려함을 포장한 틈새 아이템들이 새바람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일식 돈가스 전문점, 짬뽕 전문점, 불닭 전문점 같은 아이템들이다. 뿐만 아니라 ‘주5일제 근무’가 확산되면서 주택가 상권이 좋아진 반면 오피스상권은 위축되었다.

전국 곳곳에 대형 할인점들이 진출하면서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점포형 아이템들이 직격탄을 맞았다. 특히 중저가 캐주얼 의류브랜드들이 쇠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인터넷과 홈쇼핑을 통한 상품거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점포를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이 큰 타격을 입었다. 2000년 들어 ‘웰빙’이라는 새로운 소비 트렌드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의 질을 중요시하는 경향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샵바사브 전문점, 보리밥 전문점 같은 웰빙 아이템이 각광받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 우리나라의 경우 창업기업 증가율의 변동 폭이 크게 나타나 여타 국가에 비해 역동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2003년부터 2005년까지는 감소세가 진행되면서 여타국가와 상반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Yang, et al.(2009)의 ‘창업기업의 행태 및 성과분석’에 의하면 우리나라 창업활동의 장기(1981~2008년) 변화 추이 상 이미 2003년부터 창업활동이 위축되기 시작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Kim, et al. 2007).

#### 4.1.5 창업시장 재정립기(2007~2012년)

2007년 이후 ‘웰빙 아이템’은 창업시장의 중요한 키워드로 존재하고 있다. 건강과 환경에 초점을 맞춰 웰빙을 기본으로 한 다양한 아이템들이 등장하고 있다. 몸매관리 비즈니스, 휘트니스 클럽, 피부관리 전문점 등이 주목을 받고 있다. 웰빙 관련 아웃도어 아이템과 레포츠 관련 아이템들도 강세다. 소자본 창업 아이템들도 여전히 인기를 끌고 있다. 가격 면에서도 저가를 표방하는 창업 아이템들의 인기도 여전히 높다. 고품화 추세에 따라 실버세대를 겨냥한 창업 아이템들도 등장하고 있다. 부업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돈을 벌기위한 여성창업과 청년창업도 늘어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영어 교육 열풍의 영향으로 영어교육관련 아이템들도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

#### 4.1.6 창조경제형 창업시대(2013~현재): 협업창업

우리나라는 2013년 2월 25일 박근혜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창조경제를 강조함으로써 이를 화두로 창업생태계의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는 과학기술과 산업이 융합하고, 문화와 산업이 융합하고, 산업 간의 벽을 허문 경계선에 창조의 꽃을 피우는 것이라 정의하면서 이를 추진하는 근간으로서 전국적으로 정부주도형 창조경제타운과 대기업과 상생협력협업을 위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설치하고 이를 통하여 아이디어단계의 창업아이템을 대기업이나 관련기관과의 협업형태로 사업화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6년의 경우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중소기업청, 특허청 등 창업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부처들이 합동으로 각 지역의 창업기업과 예비창업자를 위한 ‘정부 창업지원사업 K-스타트업(K-Startup) 통합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창업자가 정부의 지원사업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지역 창업 생태계를 튼튼하게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4.2 창업학의 연구과제

창업학은 제품 또는 서비스 아이디어개발과 시장에서의 사업성 기회활용을 통한 창업행위와 과정 그리고 창업후의 기업이 창업가정신과 도전정신이 충만할 수 있도록 조직 내에서의 제품, 기술, 생산공정, 조직구조 등의 혁신과 개선을 포괄적으로 연구하는 학문 활동이다. 크게 볼 때 창업학의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이 미시적 관점과 거시적 관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미시적 관점에서의 연구과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창업가와 창업가에 의한 창업의 진행프로세스를 주 내용으로 한다. 즉, 창업가의 특성과 자질, 태도, 성향, 교육가능성 등에 대한 연구와 창업가의 창조성 개발, 사업기회의 포착과 아이디어화 및 사업화 그리고 실제 창업을 통한 경영행위에 필요한 실천적 이론체계 구축 등이 그것이다. 창업학이 창업가정신에 기초하고 창업가정신이 불확실성 속에서 기회를 포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혁신적, 진취적, 위험감수적인 정신, 행동, 과정이라고 볼 때 창업학은 창조성 개발과 새로운 사업기회 인식과 포착, 사업화 능력 그리고 혁신적인 창업경영에 좀 더 많은 노력과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거시적 관점에서의 창업학 연구과제는 개인과 기업수준을 넘어선 국가경제적인 차원이나 창업이나 사회적기업을 포함하는 창조적이고 새로운 활동을 통하여 국가의 부를 창출하려는 국가정책, 제도, 지원방안, 패러다임 구축과 지속가능성 제고 및 사회적 가치 유도 등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창업학 연구는 개인과 조직, 기업 관점에서 창업행위의 원인과 창업 선호도, 창업교육 등의 영역에서 대부분 이루어져왔으며 창업을 통한 개인, 조직, 기업의 성과와 경제성장과의 관계는 경제학이나 행정학의 연구에 주로 의존해 왔다. 이러한 분야에 대한 해외의 GEM(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연구<sup>6)</sup>는 창업학에 주는 시사성이 매우 크다.<sup>7)</sup>

GEM연구는 한 나라의 경제성장률 1/3이 기존기업, 1/3이 창업활동 그리고 나머지 1/3이 상호작용과 다른 요인에 의해 달성된다는 결과를 발표하면서 창업가정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연구는 특히 G7국가의 창업활동과 경제성장률의 상관관계가 0.77에 달한다고 주장하여 세간의 관심을 끌기도 했다.

창업자가 활동하는 시장 패러다임에 맞는 창업학 연구를 위하여 창업학도 수요자인 창업자가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이해하고 이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창업가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 사업성 기회를 발굴에서부터 시장진입 이후 죽음의 계곡(Chasm, Valley of Death)과 같은 한계적 상황의 극복을 지원하기 위한 성장단계별 지원방안과 더불어 창업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사회적 네트워크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영역 역시 창업학의 중요한 연구 분야가 될 것이다.<sup>8)</sup>

창업학이 창업가정신을 기반으로 한 창업활동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경제적 및 사회적 부를 창출하는 과정과 원리를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할 때 경제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사회적 고용을 포함한 경제발전과 이를 통한 사회적 복지를 지향하는 사회적기업 역시 창업학의 중요한 연구 분야가 될 것이다.

### 4.3. 창업학 교육과제

앞 절에서 언급한 창업학의 연구과제가 창업학 교육과제와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다는 전제하에 이를 토대로 창업학 연구자나 교육자는 물론이고 창업자를 위하여 중점적으로 교육해야 할 공통적 과제를 정리해보면 4개 부문으로 집약된다. 이는 Barringer & Ireland(2006)와 Kuratko(2007)의 내용을 중심으로 도출하였다.

#### 4.3.1 창업개념과 비전 부문

창업의 기초개념이라 할 수 있는 창업과 창업학의 정의와 필요성 그리고 창업의 주체인 창업가의 자질과 행동적 특성 등과 창업성공의 심리적 동력이 되는 창업가와 창업가정신을 교수한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창업과 창업학의 현재와 미래를 이해하도록 한다.

#### 4.3.2 창업프로세스 부문

창업의 준비와 실행 그리고 효율적인 창업자원 관리방법을 교수한다. 사업성 기회인식과 비즈니스 모델방법론 학습을 통하여 창업 기회를 파악하고 오류를 수정하며 궁극적으로는 성공가능성이 높은 사업계획서 작성이 가능하도록 한다. 그리고 창업팀의 구성과 운용을 통하여 창업마케팅, 재무 및 회계 관리 등 효율적인 창업자원관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 4.3.3 창업전략선택 부문

창업과정에서 창업자가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의사결정 방법을 창업단계별로 생기는 딜레마 극복차원과 추진하는 사업 유형별 차원 그리고 창업을 정리하는 출구전략 차원으로 나누어 교수한다.

창업딜레마 극복전략은 창업과정에서부터 후계자 승계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의사결정 딜레마를 극복하는 방법과 제조업, 서비스업, 도·소매업 등 창업업종에 따른 의 특성과 의사결정 딜레마 극복방법을 학습하도록 한다.

사업 유형별 창업전략은 벤처, 프랜차이즈, e-Business, 소호와 1인 창조기업은 물론이고 최근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는 사회적 기업창업 등 사업유형별로 특화되어 고려해야 할 전략 선택의 논리를 학습하도록 한다.

창업 출구전략은 창업이후 발생할 수 있는 기업 출구전략 준비의 필요성과 출구전략의 유형 그리고 사업유형별 기업 출구전략과 사례를 학습하도록 한다.

#### 4.3.4 창업시장과 창업제도

창업시장의 기본구조와 창업성공의 토대가 되는 사회적 지

6) GEM(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www.gemconsortium.org/report](http://www.gemconsortium.org/report))연구는 1999년부터 영국의 런던 비즈니스 스쿨과 미국의 밥슨 칼리지 주도로 진행되는 프로젝트로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각국의 창업 수준에 대한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데 창업활동이 활발한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 간에 경제성장률에서 차이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7) 창업활동이 초기에는 생계형 창업 위주로 높은 수준이었다가 국가 경제의 발전에 따라 고용이 증가하면서 기회 위주의(혁신형)창업활동이 늘어난다. GEM의 연차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초기단계(창업후 3.5년이내) 창업활동(TEA, Total Entrepreneurial Activity)' 참가인구 비율이 혁신주도형 국가 20개국 중 8위로 양호한 수준이다. 하지만 경제성장이 안정화단계에 접어들고 있어 생계형 창업이 아닌 혁신형 창업을 더욱 활성화시켜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원시스템인 정부와 공공기관의 창업정책과 제도, 그리고 창업 교육과 시스템을 교수한다.

창업자가 창업시장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할수 있도록 창업환경 전반 즉, 경제, 사회, 문화 법과 제도는 물론이고 창업 제품과 서비스 개발관련 정보를 파악하고 진입한 시장에서의 시장구조와 역학관계 그리고 해당제품/서비스의 경쟁구조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창업정책과 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목표와 추진방향설정이 명확할 수 있도록 창업정책 철학과 논리가 분명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창업과 창업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가 정책개발과 제도마련에 참여해야한다. 창업제도의 관리체계는 공급자인 정부나 공공기관이 될 수밖에 없고 해당 창업지원제도 활용은 수요자인 창업자가 하게 된다. 따라서 창업정책 공급자와 수요자 입장에서 모두 충족할 수 있는 정책 양면성의 조화가 필수적인 과제인 만큼 창업정책 입안 전문가 양성이 중요한 창업교육과제가 된다.

창업교육의 핵심은 성공하는 창업자를 지속적으로 배양하거나 창업성공을 지원하는 우수한 창업정책입안자나 창업컨설턴트를 배양해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창업교육과 창업지원시스템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가 필수적인 과제가 된다.

결국 이는 창업교육의 철학과 논리가 탄탄하게 마련하여 이를 기초로 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가 된다. 창업교육체계와 실천프로그램을 공급하는 대학이나 각종 관련교육기관의 전문성이 제고되어야 하며 창업교육시스템 활용자인 창업자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앞서 설명한 논리를 중심으로 창업학의 교육과제를 표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창업학의 교육과제

대주제	소주제	세부 주제
1.개념과 비전	• 창업과 창업학	-창업의 개념과 필요성 -창업학의 학문체계
	• 창업가는 누구인가?	-창업가의 자질과 행동적 특성 -성공하는 창업가와 실패하는 창업가
	• 창업가정신	-창업과 창업가정신 -창업학과 창업가정신
	• 창업과 창업학의 현재와 미래	-창업학의 현실과 과제 -창업학의 진로
2.프로세스	• 창업 기회인식과 • 비즈니스 모델	-창업 기회인식 및 수정 -비즈니스 모델의 이해와 전략 -창업기획과 계획: 사업계획서
	• 창업자원관리	-창업팀의 구성과 운용 -창업마케팅관리 -창업재무 및 회계관리
3.전략선택	• 창업딜레마 극복전략	-창업과정과 단계별 딜레마 -제조업창업의 특성과 딜레마 -서비스업창업의 특성과 딜레마 -도·소매업의 특성과 딜레마
	• 사업 유형별 창업전략	-벤처창업 -프랜차이즈창업 -e-Business창업 -소호와 1인 창조기업 -사회적 기업창업
	• 창업 유형별 출구전략	-기업 출구전략의 필요성 -기업 출구전략 유형 -유형별 기업 출구전략과 사례

4.시장과 제도	• 창업시장에 대한 이해	-창업환경: 경제, 사회, 문화 법과 제도 -창업제품과 시장의 역학관계, 경쟁구조 이해
	• 창업정책과 제도의 이해	-창업정책의 철학과 논리 -창업제도의 관리체계: 공급자 -창업지원제도 활용전략: 수요자
	• 창업 교육과 시스템의 이해	-창업교육의 철학과 논리 -창업교육체계와 실천프로그램: 공급자 -창업교육시스템 활용전략: 수요자

#### 4.4. 시사점

창업학의 정의와 정체성 그리고 관련분야의 연구현황을 검토한 결과 창업학이 독자적인 학문으로 분명한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도출되는 시사점과 과제를 종합적이고도 단계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개념과 용어의 정리가 필요하다:

창업학이 학문적으로 활발하게 논의될 수 있도록 창업에 관련된 용어에 대한 개념적 정의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한다. 필요한 경우 학문적 용어와 실용적 용어가 구분되어 사용되어야 하며 이와 더불어 학문적 정체성도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창업가 정신이 창업학과 동일시되는 정의의 한계와 모순점 제거가 시급하다.

##### 학문적 독특성(배타적 차별성) 확보가 필요하다:

주된 연관학문인 경영학은 물론이고 인접 학문과의 차별성이 명확해져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창업가정신과의 연구영역 및 관계 설정을 통하여 언어가 주는 기초학적 의미의 혼선과 전달 한계, 연구대상의 초점 논란을 해소할 피하거나 이러한 논란에 대한 수렴적 합의가 필요하다.

##### 창업학의 교육체계 정비가 필요하다:

창업학 교육은 성공적인 창업가 뿐만 아니라 우수한 창업관련 정책전문가와 창업교육전문가를 육성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시대에 맞게 정비되어 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창업학 제반에 대한 균형적인 연구가 필요하고 이러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육성해내는 교육체계가 만들어 져야 한다. 아울러 창업프로세스와 창업관리체계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창업 성공을 일구어 낼수있는 전략적 마인드도 교육되어야 할 것이다. .

##### 한국적 창업학에 대한 심층연구가 필요하다:

창업생태계는 그 나라의 경제수준은 물론이고 사회문화적 환경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따라서 창업지원제도나 교육제도 역시 그 컨텍스트르 달리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서구의 창업학이 우리나라에 현실에 맞게 활용되고 학습되기 어려운 것은 당연한 상황이다. 결국 한국적 창업생태계에 부합하는 창업학의 발전이 있어야 학문도 살고 현실적 창업 성공률도 높아질 것이다.

## V.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창업학의 발전을 위한 논리적 초석을 마련하기 위하여 창업학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을 정의하는데 있었다. 그리고 우리나라 창업학의 현주소와 정체성 고찰을 통하여 이를 바람직하게 발전시켜나갈 핵심적 연구 분야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창업(創業)을 “개인적 인생을 통해 선택하게 되는 다양한 업(業)중의 하나이며 사회 및 경제활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활동”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창업학은 “창업에 관련된 제반 선행연구 결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집대성하여(지식/정보체계) 이를 통하여 창업을 학습, 교육하고 연구하여 학문적으로 더 발전시키는 활동(교육/연구체계)”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정의는 기존의 많은 문헌에는 사용되지 않는 새로운 정의이기에 앞으로 이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을 것이라 판단되나 학문은 이러한 논리적 갈등과 공박 속에서 자리잡아가는 것인 만큼 창업학의 학문적 성숙에 나름대로 기여할 수 있으리라 본다.

또한 창업학을 구성하는 핵심 연구분야와 교육분야가 서로 상호 연관성속에서 발전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1)창업학의 개념과 비전분야 2)창업프로세스분야 3)창업전략적 선택분야 4)창업정책과 제도분야 등 4개 대주제분야와 12개 소주제분야를 도출하였다.

물론 제한된 연구와 교육 주제분야가 창업학의 모든 이슈를 담을 것으로 충분하지는 않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 역시 탐색적 연구 자료를 토대로 주관적으로 판별한 것이라 적용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향후 보다 풍부한 정보와 근거 자료를 토대로 연구를 진행하고 실제상황화에서의 적합도를 분석하여 완성도를 높여가야 할 것이다.

## REFERENCE

- Barringer, B. R. & Ireland, R. D.(2006), *Entrepreneurship: Successfully launching new ventures*, New Jersey: Pearson Prentice Hall.
- Cha, B. K.(2007), *A Study on Evolution of Paradigm and Disciplinary Identity of Entrepreneurship Science*, Jinju National University.
- Education Research Institute Seoul National University. (1995), *The Dictionary of Edu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 Hahn, J. H. & Ko, U. J.(2007), Comparative Study of Entrepreneurship Programs in the Graduate Schools of Korea and the US,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27(2), 105-131
- Kang, K. C.(2012), *Start-up basic book the realize vision*, Dunam Publishing.
- Kim, H. C.(2012), *Entrepreneurial Management*, Dunam Publishing.

- Kim, J. M., Oh, S. H. & Yang, J. K.(2007), *A Study on the Entrepreneurship Education of Korea: Focusing on the Entrepreneurship Graduate School*, Korea Small Business Institute.
- Kim, J. S. & Lee, C. Y.(2014), *Entrepreneurship and startup*, Moonyoung-sa Publishing.
- Kuratko, D.(2007), *Introduction to entrepreneurship (8th edition)*, Canada, South Western Cengage.
- Park, C. Y.(1986), *Entrepreneurship and startup*, Seoul, Dongguk University Press.
- Park, J. W. & Park, M. S.(2011), The Strategic Choice and Research Themes of Venturing Entrepreneurship, *Korean Business Education Review*, 68, 315-339.
- Park, Y. M.(2002), The Identity of Learning, Boundaries and Subjectivity, *The Society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The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131, 70-93.
- Small Enterprise Development Agency.(2009), *Business Manual small business sector*.



## Reflection on the Definitions and Research Tasks for the Startup Studies

Jeong, Heonbae\*

### ABSTRACT

The Startup Studies have been developed, fundamentally, by involving interdisciplinary research fields such as studies of Business, Education, Psychology, Sociology, Economic and even Engineering. It looks like a simple combination of a disparate group of studies but practically built in identical and protocale field of studies. In spite of the social and academic importance, the startup studies are too harsh reality caused by poor logical support, absence of basic words definitions, confusion of academic consensus regarding the identity of Startup studies and Entrepreneurship. In this paper is logical foundation in science for the development of Startup studies defining basic concepts and identities in Startup studies and entrepreneurship. As conclusion, we were discussed the identity of the Startup and Startup studies to support its argument presented on the field of research and education.

*Keywords : Startup, Entrepreneurship, Identity of Startup studies, Interdisciplinary Research*

---

\* Professor,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Chung-Ang University, hbjeong@cau.ac.kr